

하루를 시작하며



부희석 전 제주사대부교 교장·칼럼니스트

이제 21일이 지나면 21대 총선이 치러진다. 선거는 국민의 선택이요 심판이다. 선거가 끝나면 패자도 승자도 다 같이 국민의 심판을 견뎌야 받아들여야 한다. 승자는 패자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와 축하의 악수를 나누어 준다. 선거는 국민의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를 결정짓는 국민의 의지의 표현이고 명령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꽃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는 축제가 돼야 한다. 그 선거과정에서 잠시 있었던 갈등과 반목, 분노와 저주, 적대 감정, 파벌 의식, 지역 감정 등은 흐르는 옥계수에 손발

민초들이 위정자에게 거는 기대

을 씻듯이 깨끗하게 청산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자랑스런 한국인이고,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시민이고 도민이다. 더욱 제주인의 얼을 이어받고 한배를 함께 타고 가는 동승자(同乘者)이다. 동승자인 위정자에겐 현재를 바라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안목과 미래를 바라보는 창의적인 안목을 견지해야 한다. 이에 성현들은 위정자에겐 비문처럼 새겨야 할 덕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는 민초들을 위해선 자신의 몸을 때워 밝은 세상을 만들고, 자신의 몸을 녹인 소금으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자신의 몸인 씨앗을 썩히면서 일용한 양식을 만든다. 석가(釋迦)는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재물, 나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야상(我相)과 사물에 대한 차별심인 중생상(衆生相)과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수자상

(壽者相)을 버릴 때 비로소 추앙받는 지도자가 된다. 장자(莊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무기(無己),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무공(無功),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는 무명(無名)이라 했다. 공자(孔子)는 자기를 버리는 무아(無我),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무고(無固), 자기 독단을 버리는 무의(無意), 자기 도리를 무시하는 무필(無必)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맹자(孟子)는 먼저 자신을 뒤고난 후에 남을 다스려야 한다. 사람들을 예(禮)로 대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나의 공경심이 부족했음을 반성하고, 사람들을 사랑해도 친근해지지 않으면 그들을 나무라지 말고, 나에게 인자함이 부족했음을 되돌아 보고, 정성을 다하면서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꾸짖지 말고 나에게 지혜가

부족했음을 반성하라고 했다. 홍대용(洪大容)은 먼저 뽐내려는 금심(矜心), 세도를 부리려는 권심(權心), 언제나 이기려는 승심(勝心), 늘 이익을 쟁기려는 이심(利心) 등을 버리라고 했다. 다산(茶山)은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영(令)을 내리지 않아도 국민들은 바르게 따라오고, 위정자 자신의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을 내린다고 해도 그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전쟁, 국난이라 일컫는다. 이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정자들이 고질병인 좌파와 우파와의 정쟁, 편가르기, 위정자들이 특권 등은 없애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과 조국에게 마음 큰 빛을 줬다는 뜻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오늘을 바로 보고, 바로 사는 삶의 가치이고 후대에 대해 희망을 건네주는 대업이다.

사설

전국 최상위권 가계대출 '엮친데 덮친 격'

지난해 전국 최상위권을 보인 제주 가계대출이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높은 가계대출이 계속 지역경제 불안요인으로 지목돼 온 터에 코로나19 사태 확산이라는 돌발변수까지 겹쳐 '실상가상'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를 예측불허의 부도국면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커진데다 전국 최상위권 가계대출로 야기될 제주지역 금융과 우파와의 정쟁, 편가르기, 위정자들이 특권 등은 없애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말과 조국에게 마음 큰 빛을 줬다는 뜻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오늘을 바로 보고, 바로 사는 삶의 가치이고 후대에 대해 희망을 건네주는 대업이다.

을 웃돌았습니다. 수도권(6500만 원 상당)과 유사한 수준이면서도 적은 소득규모에 비해 많은 대출로 이자부담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29%로 전년 말 0.23%보다 높았고, 전국 평균(0.26%)에도 웃돌았습니다. GRDP(지역내총생산) 대비로 본 제주지역 가계대출 비율은 82.4%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에 이를만큼 위험수위입니다. 1월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는 국내-외는 물론 제주지역 실물경제에 '직격탄'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시 가계대출 연체율은 더 높아지고, 이는 금융불안에도 지역경제에 이중, 삼중의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주체로서의 가계가 버티기에 허덕이는 현실이 현실을 방치해선 안됩니다. 금융기관과 가계가 조기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한편 정부-기업도 현 난국을 벗어날 초비상경제 대책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 제도로 혜택 누리세요



오지향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요즘 우리 최고 관심사는 코로나19 일 것이다. 국민들은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으며, 휴교, 휴원, 재택근무로 우리의 일상 생활을 제한되게 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매일 발열체크와 방역 활동을 하고 개인 위생 철저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는 위기 상태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빠른시일에 회복되기를 바라며, 경제위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에 정기

분으로 두번(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신청 시기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이 달라진다.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연간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의 핵심은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흔히 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납부까지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 연납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1일 까지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및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세금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CD/ATM 카드납부,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간편납부 시스템(1899-0341) 등이 있다. 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납제도를 잊지 말고 적극 활용해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

뉴스-in

어제는 적, 오늘은 동지?

김용철 예비후보 불출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가 24일 돌연 불출마 선언과 함께 장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눈길. 김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후보는 제주의 새로운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낼 능력있는 후보"라고 강조. 앞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는 "장 후보는 과거 정당활동, 정치활동 및 정치철학 관점에서 볼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오은지기자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사들의 연행에 주의를 주고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다시 점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선)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 김지은기자

제주보건소 비대면 민원 처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보건소측이 상황중료시까지 민원인 편의도모와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24일부터 비대면으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기로 결정. 보건소측은 마약류 관련 민원을 제외한 의약품관리 분야의 모든 인-허가업무를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상담이나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검토 후 처리할 예정. 한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없이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학생인권 피해 점검 나서나 ○...지난 19일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내 학교 인권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지 관심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4일

국립공원 50돌 한라산, 보전대책 서둘러야

제주도는 한라산을 빼놓고선 설 명할 수 없습니다. 한라산은 도민의 삶과 역사,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라산이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제주도가 한라산이고, 한라산이 제주도'라는 말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와 한라산은 때를 때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보고이던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라산은 1966년 국내 최초로 천연보호구역(제182호) 지정에 이어 1970년 3월 24일 국내 7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면적은 지정 당시 133km에서 1987년 149km로, 현재는 153.3km(제주도의 8.3%)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은 한반도 4500종 식물 중 절반에 가까운 2000종의 식물과 5000종의 동물이 서식하는 국내 생물종의 50% 이상 자생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한라산을 세계

의 보물로 평가했습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 2010-2015년 랍사르스지로 등록된 것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한라산이 세계적으로 자연·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의 보고이자 국제보호지역인 한라산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과부하에 걸린 것입니다. 한해 100만명이 한라산을 찾으면서 노면침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올해 2월부터 탐방예약제 시행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라산 구상 나무 집단조사도 문제입니다. 진달래밭 일대는 90% 가까이, 윗세오름 지역은 67% 이상 조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인류의 유산인 한라산에 대한 보전·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양대현(前 북제주군수) 부인 광산 김씨 원희(향년 83세)께서 서기 2020년 3월 24일 14시 4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3월 25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3월 26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구좌읍 평대리 선영 남 권 양대현 며느리 김현영 아들 양석훈 사위 김성택 딸 양복실 고태영 오복 고태영 손자 양문주 외손자 김병우 손녀 양해원 김은수 고광수 고지수 ※ 연락처: 양석훈 010-3163-7459

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제농농업회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회사법인 삼성중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2020년 03월 24일 양사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그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며 합병으로 인한 "갑"의 합병신주는 배정하지 않기로 하는 소규모(간이) 합병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양사는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등 이해관계자 및 "을"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25일 "갑" 주식회사 제농농업회사법인 제주시 첨단로길 3 (영평동) 대표이사 김 태 형 "을" 농업회사법인 삼성중료 주식회사 경기도 평택시 서탄로 131 대표이사 이 성 용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양 정윤식(1966. 4. 5생) •최후주소: 제주시 용남2길 6(용담일동) 상거지는 2019년 12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20노단1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재산상속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진주시 서정대로 275, 303호 (이현동, 유신아파트) 2020년 3월 2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정 한 술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폼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한라일보가 대 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